

# 함께 행복해지는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

10년 전쯤 미국에 살고 있는 의사 친구가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우리 부부를 만났을 때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중학교 1, 2학년 때 쯤으로 보이는 남자 아이들이 삼 등을 들고 길을 걸어가기에 왜 어린 학생들이 삼을 들고 갈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청년들이었다고 했다. 북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정말 심각해서 같은 민족으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했었다.

지난 2월, 개성공단과 개성을 다녀왔다. 그 때 그 친구의 이야기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새삼 전해져 왔다. 청소년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우리 아이들도 물론 절대 빈곤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아이들, 결식 아동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오히려 비만을 걱정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 우리 민족, 지구촌 사람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가지는 위치에 와 있다. 더더군다나 같은 민족의 문제에는 말할 나위도 없다.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이 시작 되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한창 성장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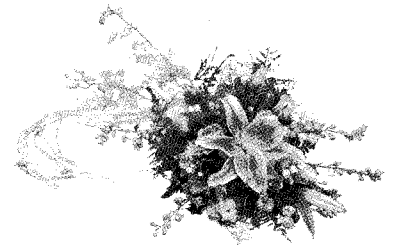
임정희  
통일우유보내기운동 추진위원  
(밝은청소년지원센터소장)

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를 보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이 북한 청소년들의

영양상태와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없이 고맙다.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이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닌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규모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관련 기업, 정부부처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통일 우유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줄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나 또한 행복을 느낀다.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이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닌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규모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관련 기업, 정부부처가 동참하기를 바란다.